

‘바이오 헬스케어’ 미래 먹거리로

복정권 기자

전주시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지역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유일의 중재의료기기 전문 연구개발센터인 전북대학교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6일 3·4등급 중재의료기기 개발과 생산 평가를 위해 설립된 전국 유일의 전문기관인 전북대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주시가 글로벌 산업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시장 선점을 위해 바이오소재 핵심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에 적극 협력하기 위한 거점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거점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는 국비 등 총 170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10월 대형 연구센터로 완공됐다.

전주시와 전북대는 최근 세포실험과 동물실험 등 사용 적합성 평가 등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사업도 따냈다. 국비 100억 원 등 총 215억 원을 투자해 전북대 캠퍼스에 메카노바이오



국내 의료기기 핵심원천기술 국산화... 세계시장 진출 신산업 선도 전주시-전북대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 협력

활성소재 기반 의료기기 개발이나 제품화에 필요한 실증시설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혁신중재의료기기 특화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관련 기업 이전과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의료기기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한발 앞서 뛰어든 도시들은 있지만 전주만큼 탄탄한 기반을 갖춘 도시는 많지 않다”면서 “중재의료기기 원천기술 확보와 핵심 메카노바이오 의료소재 개발을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된 만큼 전북대와 함께 힘을 모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워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모두의 미래 위해 사전 투표하세요”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미리 투표해달라”며 27일~28일 양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우 후보는 26일 “선거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전주대변혁의 기회를 잡는다. 농치느냐는 결국 투표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시민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시민들과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책임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

투표에 꼭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강한경제 전주대변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기재부 공직생활과 예산전문가의 강점을 앞세우겠다”며 △대한방직 터, 종합경기장 개발 조속 추진 △전주역 명품환승센터 조성 △관광광도시 전주 활성화 등 능동적인 개발 정책들을 내세웠다.

우 후보는 “전주발전을 염원하는 간절한 바람을 한 표 한 표 소중하게 행사해달라”며 “전주엔 해야 할 일이 많다. 시민들께서 사전투표를 통해 우범기가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복정권 기자



김경민, “위기 청소년 지원책 마련”

김경민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는 26일 “미래의 자산인 청소년을 위해 위기 청소년과 소년교화시설에 대한 청소년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주지역 학생들의 학력 저하의 문제는 교육계가 해결할 문제이지만, 교육 이외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은 고스란히 행정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

한 10여개 기관단체의 역량이 여러 여건상 부족하고, 소년교화시설마저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위기 청소년 대상 및 선도대상 청소년 선정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소년교화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청소년들의 삶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정신질환, 약물 남용과 같이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에 건의해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교화 교육, 직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전주시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정권 기자

통일부 지정 ‘전북통일교육센터’ 출범

전북겨레하나, ‘젊고 생동감 넘치는 센터 만들 터’

통일부 지정 전북통일교육센터가 지난 24일 전주아름다운컨벤션웨딩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전북겨레하나가 지역 센터 위탁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10개 광역, 권역 운영기관 중 민간단체로서는 유일하다.

이 날 출범식에는 김은경 센터장(전북겨레하나 이사장)을 비롯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김창수 중앙통일교육센터 사무총장, 김은숙 국립통일교육원 사무관, 김미정 전라북도자치행정국장, 박성용 전북대학교 통일교육사업단장, 임경진 전주YWCA 사무총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는 23기 통일 교육위원 29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이번 위촉은 20대와 30대 여성 위원 비중이 높아진 점이 눈에 띈다. 전북통일교육센터 김성희 사무처장은

“통일교육은 고루하다는 편견을 전북센터가 깨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감동 있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실력 있는 교육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청소년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행사도 준비 중이다. 국민인들이 통일을 주제로 창작 경연을 펼치는 ‘일주일 통일풍류대장’을 올해 가장 주목되는 문화행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은경 센터장은 “우크라이나전쟁, 남북관계 단절, 한반도 긴장 고조로 평화와 통일이 중요해졌다”면서 “지자체, 교육기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의 붐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복정권 기자



“지역 발전, 결국 유권자의 몫”

무투표 당선자 사상 최대 발생, 후보자간 고소·고발 난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이번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들이 사상 최대로 발생하고, 후보자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과연 이번 선거의 결과로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오랜 기간 계속된 지역정치 독점과 지방선거의 승자독식 선거방식으로 인하여 다른 정당들은 아예 입후보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전라북도내 무투표 당선자가 전라북도의회 22명, 기초의

회 29명으로 4년 전 선거에 비해 무려 5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 역시 4년 전 선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정체되어 있는 지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 씁쓸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역발전의 역할과 책임을 저왔던 주체는 결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아닌 바로 유권자인 우리 자신 들임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처럼 선택할 후보들이 많지 않는 등 어려운 선거일수록 유권자의 판단과 투표참여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현철 기자

새전북이 쓰면, 대한민국이 읽습니다!

063) 230-5850 063) 230-5821 063)230-5840

전북의 중심을 잇는, 새전북신문 LED전광판광고!

Full Color LED 고화질의 광고영상으로 시각적 주목도가 높아 효율적인 브랜드의 이미지 구축이 가능합니다.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2-8 재중빌딩

전광판 광고문의 010-3654-5030 063)230-5714